

# 발라드에서 합창곡까지

### 새로 나온 음반 '4인4색'

장미꽃 향기에 자비와 지혜의 아름다운 삶을 노래하는 선율들이 실려 온다. 보다 현대적인 차세대 찬불가에서부터 범능 스님이 전하는 서정적인 노랫말까지 '4인4색' 음반들이 불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차세대 찬불가임을 선언한 '패랭이꽃과 나그네'는 연꽃의 소리와 풍경소리가 손을 잡고 발라드와 랩, 스님과 소녀의 듀엣 등으로 신선한 충격을 던진다. 봉사단체 무량회(회장 박윤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음성포교를 발원하며 출반한 '연꽃향기 바람결에'는 옛 사찰을 주제로 국악과 양악의 만남이 이채롭다. 노래하는 포교사 범능 스님의 네 번째 앨범은 김용택 시인 등이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감성적인 노랫말을 선보인다. '온 누리 자비 광명 찬불가요 제1집'은 민요풍 삼귀의로 색다른 시도를 했다. 다양한 가락과 악기로 특색 있는 음악을 선사하는 4장의 음반을 만나보자.



#### △ '패랭이꽃과 나그네' 연꽃의 소리

#### 스님과 여대생의 '하모니'

순수하고 맑은 패랭이꽃은 수행하는 나그네 곁에서 화합과 행복을 노래한다. 수행자 지허 스님(천수사 주지)과 대학생 불자 강혜윤씨(고려대3)가 듀엣 음반 '패랭이꽃과 나그네'를 출시했다. 연꽃의 소리와 풍경소리가 손을 잡고 '차세대 찬불가'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찬 첫 발이기도 하다. 이종만 실장(풍경소리)이 음악 총감독을 맡아 지난해 6월부터 기획해온 이번 음반에는 반영규 회장(불교음악협회)을 비롯한 작사가들과 박지열씨 등 작곡가들이 참여해 10곡의 노래를 수록했다.

'봄바람 꽃바람' '나그네' '패랭이꽃이 피었는데' '날마다 좋은 날' '연꽃이 피었어요' '중생의 마음' 등은 강혜윤씨와 지허 스님이 한 곡씩 번갈아 부르고 랩이 섞인 신세대풍 '행복'은 듀엣으로 불렀다. 지허 스님의 '우리말 반야심경'도 실려 찬불가임을 강조한다.

연꽃의 소리 박금표 대표는 "음악적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연꽃이 피었어요" '중생의 마음'이 가장 알리고 싶은 곡"이라고 밝혔다.

'패랭이꽃과 나그네'는 앨범 자체가 한 편의 예술작품이다. 재킷 사진은 김홍희와 일우집단이 맡아 예술성을 들신 풍진다. (02)723-9836, www.soundoflotus.com

#### △ '연꽃향기 바람결에' 무량회

#### 고찰 역사 등 노래... '寺歌'로 보급

'얕산 뒷산 한 몸 이뤄 화엄꽃 만발하니 비바람 그친 곳에 님의 얼굴 해맑아라.' 범보사찰 해인사를 노래한 '전생부터 사랑했던 님'의 한 구절이다. 해인사 필만대장경과 해인삼매를 작시해 가락을 붙인 이 노래는 '연꽃향기 바람결에'에 실려 있다. 모두 13곡의 노래가 담긴 이 음반은 봉사단체 무량회(회장 박윤희)가 만들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음성포교를 통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에 더 다가가는 다짐에서다.

반야월 윤익삼 김주명씨 등 대중가요 작사가 3명 등을 비롯한 무량회 회원들이 작시한 작품에 곡을 붙였다. 노래는 박윤희 회장이, 작곡은 작곡가 이동

훈씨가 맡았다. 이번 음반의 특징은 서곡을 제외한 곡들이 3보 사찰, 5대 적멸보궁, 3대 관음도량 등을 노래했다는 것이다.

무량회 박윤희 회장은 "경음악과 노래를 2장의 CD에 나눠 담았는데 불자들이 경음악을 틀어놓고 직접 노래하면 좋다"며 "앞으로 이 음반에 들어있는 통도사나 부석사 해인사 흥련암 보리암 등에서 원하시면 사가(寺歌)로 합창단이 부를 수 있도록 악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7일 10주년을 맞이하는 무량회는 소년 소녀 가장 돕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첫 음반에 이어 락 합창 발라드 등 젊은이 풍의 노래를 담은 2집 앨범도 구상 중이다. (02)523-1942

#### △ '무소의 뿔처럼 범능 스님'

#### 서정시와 만난 달콤한 선율

범능 스님의 새 앨범 '무소의 뿔처럼'이 나왔다. '흔들리며 피는 꽃' '인생' '무소의 뿔처럼' 등 12곡이 담긴 이번 앨범은 '오월의 꽃' '먼 산' '삼경에 피는 꽃'에 이은 네 번째 노래집이다. 김용택도 종환 시인 등의 시가 음들과 만나 범능 스님의 따스한 목소리로 불자들에게 감동을 전한다.

6월 3일 저녁 8시에는 '범능 스님 초여름음악회'를 화순 만연사(061-374-2112)에서 준비하고 있다. 고구려 시인의 사회로 진행될 음악회에는 김용택도 종환 시인과 가수 박문옥씨 등을 초대해 가야금 해금 대금 아쟁과 베이스 기타 등이 어우러지는 환상의 무대를 마련한다. www.blueum.pe.kr

#### △ '온누리 자비 광명 찬불가요 제1집'

#### 민요풍 삼귀의...찬불가요 17곡 담아

민요풍 삼귀의로 시작해 석가모니 약사여래 등을 노래한 음반 '온누리 자비광명 찬불가요 제1집'이 나왔다.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바로 곧 범인이요, 발원한 찬불가요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롬본 주자, 제주불교범우회합창단 지휘자 등을 역임한 이용범씨가 작곡을 맡았다.

범훈 스님과 신경남씨가 작사하고 신경남씨가 노래한 찬불가요 1집은 이외에도 노승의 발원, 무량공덕, 관세음보살 등 17곡의 찬불가요가 담겼다.

강지연 기자 jiyang@buddhanews.com

## 구해·일운 스님 등 총출동

5월 31일 단양읍 신촌 봉원사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시연이 벌어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종일 이어지는 영산재는 영산재 보유자 구해 스님을 비롯해, 일운·송강·기봉·원명·고산·효성·월타·법현·운봉 스님 등 영산재 보존회 소속 스님들이 총 출동해 거룩한 의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영산재 시연은 시련을 시작으로 대련 관공 조전점인 신종작법 패불이온 식당작법 영산단권공 운수상단권공 중단권공 신종퇴공 관음시식 소대봉송 등 13단계로 진행된다. (02)392-3234, www.bongwonsa.or.kr

## 이홍자 개인전, 불일미술관



이홍자씨의 그림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다.

"2004년 5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평생 마음의 짐이었던 어머니. 10년의 천도재를 지냈다. 그때서야 난 붓을 잡을 수 있었다."

서양화가 이홍자씨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5월 31일~6월 9일 열린다.

마치 아이가 그린 듯 단순한 선과 화사한 색감들은 이홍자씨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각적 표현이다. 군더더기를 없애고 사물의 본성만을 표현하고 했던 작가의 고백은 나무와 스님, 꽃밭에 늘어난 고무신들로 형상화 된다.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연꽃과 코끼리, 여러 지름을 든 관음보살 등을 그림 속에서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02)733-5316

강지연 기자

## BBS, 몽골에 도서 1500여 권 기증

불교방송(사장 이성언)이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과 함께 몽골 고려사에 도서를 기증한다. 해외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문서포교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를 위해 불교방송은 불교서적을 비롯한 교양 문학 아동 등 1500여 권의 다양한 서적을 각 출판사의 협찬을 받아 모았다. 5월 10일 발송을 마친 기증도서는 6월 10일 몽골의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맞춰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고려사에 기증될 예정이다.

불교방송과 대한불교진흥원은 매년 스리랑카 네 팔 등 불교국가를 대상으로 문서포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 부처님 품이라 더욱 신나요



### 불교방송 '가요스케치' 진행 양혜승

시는 정취자들이 많아서 우렁찬 하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나는 노래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불교방송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한 선배의 권유에서 시작했다. 고민하지도 않았다. 그저 불교방송이라기에 향수에 이끌리듯 단번에 허락했다. 방송국에 와서 지나가는 스님 승복 끝자

### 노래와 얘기로 신나는 주말 '책임'

"스님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양혜승씨. DJ를 하면서 새 지식들이 쌓이는 것이 행복하다. "스님, 열불소리, 향내음을 접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는 양혜승씨는 자주 붓은 사를 찾아 마음을 다스린다.

사람과 삶의 얘기를 신나게 풀어가는 '양혜승의 가요스케치'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를 시작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부처님 품이라서 그런가요? 불교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이 너무 편안해요." 불교집안에서 자랐다는 가수 양혜승씨가 불교방송에서 주말 아침 프로그램 '양혜승의 가요스케치' (토·일 07:05)를 맡은 지 한달이 됐다.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아침 프로그니까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겠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

## "효과적 편성 없었다"

### 보리, 봉축 프로그램 모니터

(사보리가 2006 봉축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를 내왔다. 보고서에서 "2006년 봉축 프로그램은 내용이 세련되어지고 군더더기가 없어진 대신 효과적인 편성을 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며 "지상파를 통해 방송된 불교관련 프로그램이 총 15편에 불과해 지난해 25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올해 방송된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6편, 드라마 2편, 시사교양 2편, 영화 2편, 행사보도 2편으로 다큐멘터리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 정규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날 관련에 치우쳐 불교

관련 프로그램을 거의 다루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보리는 이번 봉축 프로그램 가운데 KBS스페셜 '선 이야기'를 수작으로 꼽았다. 1년여에 걸친 제작기간과 애니메이션 기법 등을 이용해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 특히 고승의 수행담이나 법문을 통하지 않고 간화선을 직접 탐구하는 방식의 정공법을 택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지난해에 비해 프로그램의 질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것이 (사보리의 평가다. 이와 함께 올해 대부분의 봉축 프로그램이 심야시간대에 방송되는 등 시청이 쉽지 않았던 만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대안론 정책을 펴 시청가능한 시간대 편성 요청과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강지연 기자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회의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허거 자광 지은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날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